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마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신년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일을 지키자

세해를 맞이하는 충현의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1993년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요, 셋째는 복음전파입니다. 이 일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김의 삶이 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써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삼상 26:25)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있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우리에게

게 주어진 천국일꾼 양성과 지역사회에 봉사와 남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새로운 장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일을 지킵시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사 52:7)라고 했습니다.

새해 아침부터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의 발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충현교회 당회장 신성종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금년으로 설립40주년을 맞는 우리 충현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성숙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성도간의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충현교회의 모든 교우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1993년은 기도운동으로 영성이 살아 있는 교회가 되어야

온 성도가 사랑과 섬김 가운데 하나되어
북한선교, 새신자 양육, 기도운동에 주력하는 한 해



대담 / 윤 명 식(장로·기획실장)
조 선 근(장로·주간총현 편집국장)
일시 / 1992년 12월 23일 오후2시
장소 / 당회장실

지 난 해 우리 총현교회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오셔서 그 뒷처리를 맡으셔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셨는데 그런 덕분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많은 일을 하였고 특히 모든 교인들이 다 한마음되어 각기 자리를 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꼭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심정이 어떠하셨는지요?

우리 원로목사님이
40여 년 동안 다져 놓은 기초가
건전하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든든함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교회에서 목회한 경험이 꽤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과하는 지혜들을 어느 정도는 터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무리 싫은 소리가 들려도 참고, 잘못이 드러나도 용서하고, 서로서로 화목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어디가서든지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려움들이 해결되더군요. 그동안 총현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편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철학을 다 펼쳐서 일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는 일이 더 중요하게 때문입니다.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주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새해에는 다소 제 목회철학에 충실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켜 보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총현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원로목사님이 40여 년 동안 다져 놓은 기초가 건전하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든든함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자신이 하나

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일년 전의 악몽을 떨쳐 버리시고 모두가 하나되는 일에 앞장서시고 있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잘 협력해 주시고 지금처럼 원로 목사님이 뒤에서 저를 잘 지도해 주시면우리 교회가 1993년도부터는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목사님께서 오셔서 목회 방향을 천국 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로 정하시고 그런 목표로 총현교회의 힘을 모으시고 이루시려고 애쓰셨는데 실은 이제부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새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뭔가 안정적인 가운데 미래를 힘있게 지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전 교인들이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우리 교회의 목표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한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차적으로 1992년도에는 교회 배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실질적인 배가에는 미흡

새해에는
금년에 시작한 일들을
물주고 가꾸어서 연말에는
추수를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해에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
나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는 배가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새해에는 금년에 시작한 일들을 물주고 가꾸어서 연말에는 추수를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해에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 나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물

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고, 말씀도 아름답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아름답고, 우리의 가정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지요. 또한 지켜 나간다는 것이 그저 현상유지만을 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더 사회에 봉사하고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며 교회가 성장해야

모든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셨는데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도
훌륭한
천국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천국일꾼 양성은 우리 교회의 설립 10주년부터의 표어이며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 온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목사님께서 천국일꾼 양성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선 천국일꾼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좁게는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등과 같이 주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넓게는 천국을 확장시키는 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기에 직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셨는데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도 훌륭한 천국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면 다 천국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현교회에서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각 방면에서 크게 활동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천국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현교회 교육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대성을 띠지 못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시대마다 사명이 다릅니다. 즉 1세기와 16세기

성탄절과 연말, 새해의 시간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바쁜 중에서도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
주님을 믿고 섬겨나가는 일이 해가 바뀐다고 무슨 새로운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해가 주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계획, 새로운 각오들을 피차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하고 싶어서(주간 총현)에서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라면 새해에 대한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의 의지를 잘 헤아려 그런 방향으로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생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대담이 모든 총현의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와 오늘날은 그 사명이 다 다릅니다.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면 복음으로 통일하여 통일 조국을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교육은 시대의 흐름이 전혀 강조되지 않는 근시안적 교육입니다. 물론 기초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대를 살피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회교육의 문제점은 가정교육과 교회교육과 사회교육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시대정신을 잘 살피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방향의 교육

**우리 교회가
북한선교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선교는
김창인 원로목사님이 최초로
주창했고 계속적으로
애정과 열심을 가지고 해 오셨고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선교는
우리 충현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가정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교회교육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면서 전임 교역자 문제가 자주 제기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협력목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할 만하면 나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전문화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또한 한 분야에서 평생을 사역한다고 할 때 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수 교회학교가 있어 전문화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도 전임교역자를 확대하고 싶는데 심방부의 필요 때문에 전임 교역자에게 심방부를 겸하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 민족복음화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특이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번 기회에 좀 밝혀 주시지요.

▶저는 현재 전 인구의 25%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50%정도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질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이 각계 각층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북한까지 복음화되어야 민족복음화가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북한선교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것은 이 남한의

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김일성 교조주의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에 김일성만 제거된다면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남한은 돈이라는 우상 숭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 안에 통일이 되고 북한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북한선교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선교는 김창인 원로목사님이 최초로 주창했고 계속적으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해 오셨고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선교는 우리 충현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더 내실을 다지고 실력을 키우고 준비하면서 진행해 나야 할 것입니다.

- 세계 선교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요? 또한 선교정책적인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어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면이 필요할 터인데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선교는 해외에 이민국 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였습니다. 충현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인들에 대한 선교는 시대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직접 가거나 원주민을 초청하여 교육을 시켜 내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은 언어, 문화적인 장벽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한인 이민 1.5세~2세들을 교육시켜 그들을 파송하는 법입니다. 특히 선교사와 함께 나간 자녀들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현재 이러한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교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방향으로 선교정책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양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훈련시켜 내보내는'
이런 원리의 훈련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평신도지도자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하는 것은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현교회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라고 할 때 북한선교가 제일 우선입니다. 우리 충현교회는 북한선교에 집중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단계적으로 지혜롭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교인 등이 함께 이해하고, 함께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전 교회적인 관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충현교회가 부름을 받았다

고 생각합니다.

- 세 가지 목표 외에 사회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랄까 또는 구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데요, 특히 충현교회의 위치와 입장에서 그런 필요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충현교회에는 커다란 세 기둥이 있습니다. 곧 봉사관이 준공되면 예배당을 가운데 두고 교육관, 선교관, 봉사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고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서 지역사회나 국가사회에 봉사하러 나가고 또한 선교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 봉사이지요. 따라서 사회를 위한 사랑의 실천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새해에
꼭 해야 할 일이 기도원 활용을 통한
기도운동입니다.
매주 각 교구별로
목요일에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현재 기도원 운행
버스 시간이 낮 시간대에도
있어야 겠지요.
교회의 전체적인 영성을 높이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분위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할 것 입니다. 결국 교육은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또 제2교육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꼭 상징적입니다. 즉 교육이 다소 부족하다는 뜻이지요.

- 92년도에는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표어였는데 93년에는 어떤 새로운 표어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일년에 한정한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목회철학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민족을 향하여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는 뜻입니다.

- 지난 11월의 '예수사랑 큰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고 또한 매년 2,000~2,500명의 새신자가 자연적으로 유입되는데 그것이 교회의 성장과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양육부족입니다. 우선 각 교구를 맡고 있는 목사나 전도사들이 새 교인에 대하여 보다 더한 열심이 있어야 하고, 기존의 교인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대하는 관심이나 태도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사람이 충현교회에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북한선교를 염두에 둔 민족복음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하신다. 군장병 합동세례식 광경

적응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한 타교회서 직분자들이 올때 우리 교회가 그분들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새로 오는 교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따뜻한 관심으로 대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시급하게 요청됩니다. 또한 양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 새신자 교육은 너무나 기계적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더 많이 밀려올텐데 그것을 대비해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많은 새신자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의 정비입니다. 우리가 교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새해에는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제23교구를 신설합니다. 이처럼 교구를 늘려 나가는 것은 미래지향적입니다. 현상유지만을 위한 것이라면 10~12개 교구면 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필요의 배가 되는 교구를 만든 것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배가될 것이라는 확신과 의지의 표현이며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구체적인 양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훈련시켜 내보내는' 이런 원리의 훈련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각 교구별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의교회이지요. 사랑의교회는 530여 명의 훈련받은 평신도사역자가 있습니다.

- 내년도에 목사님께서 꼭 하시고자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요?

▶우선 금년에 안했지만 새해에 꼭 해야 할 일이 기도원 활용을 통한 기도운동입니다. 매주 각 교구별로 목요일에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현재 기도원 운행버스 시간도 아침과 저녁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있어야 겠지요. 교회의 전체적인 영성을 높이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분위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 살아갈 수 있는 한 해를 주셨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훌륭하게 모든 면에서 교회의 방침과 요구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왔는데 새해에도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간충현>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정리/이 형 수 (집사·주간충현 편집장)

1993년 각 위원

인사위원회 / 신성종 목사

교회의 행정은 목회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도록 해주는 바퀴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축은 첫째는 인사요, 둘째는 재정입니다. 이중에서도 인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인사를 책임진 담임 목사로서 공평한 인사배정과 새로운 많은 일꾼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일꾼을 키우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저들을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면에서 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기획위원회 / 노광현 장로

1992년도에도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1993년도에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신임 기획위원장으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증책을 맡게되어 두려운 마음이 앞서지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당할 뿐입니다.

교회 전반에 관한 문제들의 개선,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방침에 따



라 추진하시는 모든 일에 면밀한 계획과 실천해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금년 일년 동안에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각자 맡겨진 일에 바로 충성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에까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정위원회 / 김차생 장로

조직사회가 움직이는데 행정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윤회율와도 같고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행정의 책임을 맡게되어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일반행정, 교육행정, 교회행정 등 수많은 행정의 책임을 짊어질 수 있지만 교회행정만큼 능동적인 면을 요구하는 행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중심, 봉사중심으로 흐르다 보니 행정도 은혜중심, 봉사정신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중심이라고 해서 적당주의는 절대 있을 수 없고 행정은 행정으로 꿰고 맺어야 합니다. 행정은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요구합니다.

직원의 복무 및 복지, 예산 집행 및 결산, 자산 및 비품의 유지관리, 각종 기록 통계관리, 홍보출판관리, 교회내 각 시설물 호



울적 운영 기도원 및 동산 관리의 극대화, 각 위원회 및 기관과의 유관관계 개선등 산적한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 내에 막히고 정체되어 잘 흐르지 아니

하는 부분을 찾아 뚫고 개발하여 잘 흐르게 하는 행정, 기다리는 행정에서 일을 찾아 해결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끌려가는 행정은 뒷북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편 모든 교회에서 일하는 행정요원들을 비판적 시각보다 인격적으로 격려하는 아량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총현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각오와 결심을 가져 모든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위원회 / 최대원 장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의 축복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나은 손익계산서를 하나님께 바칠수 있는 더 충성스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한 종이 감사위원장을 맡게되어 주인으로부터 10달란트나 받은 것처럼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도여러분의 기도가 있을 것으로 믿고 담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합되게 쓰여지는지 감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정기 감사를 년 2회(현재는 4회) 시행하고, 아울러 행정감사



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는 비품, 서류의 보관 및 기록상태 그리고 제도 및 운영의 적정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해에도 봉사관 제2교육관 동산 조성 기도원증축 등으로 예산이 지출될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즉흥적인 행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사전에 면밀한 계획하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행사를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때가되면 감사는 필히 받아주시고 참고로 교회회계의 방향과 방법을 교육하는 회계 실무교육이 년초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배위원회 / 김방진 장로

예배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로 성도들이 다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 총현교회는 경건한 예배분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습니다. 최근에 예배분위기가 이전과 같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특히 당회장 목회지침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부끄럽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매 주일예배, 찬양예배, 수요일예배 및 각 절기예배, 성례식등 모든 예배에서 경건한 분위기를 다시 분명하게 하도록 노



력할 것입니다. 성도들께서도 협조하여 모든 예배 시작 10분전에 오시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분명한 예배안내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예배위원회를 위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통하여 전 교회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며 교회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성도들의 꾸준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찬양위원회 / 이병학 장로

그동안 찬양대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부흥케하고 한국교회의 음악을 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기에 힘다해 노력하고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찬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온 대원들과 반주자와 지휘자 기타 모든 임역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별히 새해는 교회설립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일을 기념하며 미국 주요도시 순회공연(LA수정교회, 뉴욕, 카네기홀,

할렐루야교회, 워싱턴, 케네디홀, 백악관, 시카고, 무디교회, 무디 성경학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단원이 12일간 7회 이상의 공연을 할 예정인데 좋은 대원들이 선발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위원회 / 손동운 장로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앞당길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예수사랑 큰잔치로 뿌렸던 복음의 씨앗을 거두어 들이면서 또 후년에 거두어 들일 씨앗을 다시 뿌리며 교회의 배가 운동과 민족복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을 생각할때 우리 모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증거로 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리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빚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과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인 복음을 전하여 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음화 된 통일 조국에서의 우리 총현교회의 위치와 사명과 세계복음화를 향한 우리의 비전을 눈 앞에 그려 보면서 금년 한 해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하여 힘차게 뛰어보

시지 않으시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선교위원회 / 하대선 장로

소망이 넘치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이역만리 낯설고 물결은 선교지에서 주님의 명령따라 복음전파를 위하여 눈물과 땀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원하며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해동안 세계선교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총현의 성도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선교부는 1993년을 총현교회 선교사업 중흥의 해로 삼을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남다른 결의와 각오 속에 신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선교위원회는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1993년도 선교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첫째, 기존 선교사에 대한 지원의 강화. 둘째, 선교사 파송의 배가운동 전개. 세

장의 새해인사

제, 북한선교정책의 재정립. 네째, 2000년 대를 향한 선교비전의 설정. 이와 같은 선교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존경하는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충현의 성도여

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 더욱 큰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육위원회 / 송기홍 장로

‘천국일꾼을 키우자’는 우리 충현교회의 변할 수 없는 목표이며 표어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천국일꾼을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방대했던 교육위원회 조직이 교육훈련원의 실설로 많이 이관되어 오직 교회학교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오늘날의 충현교회 학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헌신된 교사들의 정성어린 봉사로 매년 교회학교가 부흥발전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 내의 연구과제들이 교육연구소로 많이 이관됨에 따라 교육연구소와 긴밀한 협조하에 충현교회 교회학교를 한당어리로 보는 교육체계와 교재 개발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은 교회와 학교(사회)와 가정이 서로 협조하고 조화됨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에 교회에서 사회와 가정을 위하여 지원 가능한 일을 찾아 서로 연결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일을 할 것입니다.



봉사위원회 / 박치민 장로

많은 위원회 중에서 특히 봉사위원회는 어감부터가 실제적으로 몸으로 일하는 부서라는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93년도 구제위원회 업무를 포함한 봉사위원회가 다시 탄생되어서 그 사명이 주어졌을 때 겁이 나면 서도 기쁘고 감사하였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각양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봉사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늘 함께 감격하며 받는 말씀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봉사는 무의미하며 봉사는 베풀어진 사랑이기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며 진리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내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서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기에 저는 감사함으로 글자 그대로 헌신봉사하는 위원회로 만들기를 계속 힘쓰려고 합니다.



건축위원회 / 오정현 장로

우리는 그동안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함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다른 필요들이 생겨 현재 봉사관을 건립 중에 있고 또한 제2교육관과 주차장을 새로 건축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원에 1500여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 기도원을 활성화해야 하는 필요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이 현재 준비작업에서부터 하나하나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곧 공사에 착수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일들은 건축위원회의 일만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하나되어 협력해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큰일 앞에서 성도여러분들이 깊은 관심과 이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있고 확신있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지켜봅시다.



재정위원회 / 김영개 장로

지난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동참하며 큰 이해로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재정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만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 필요가 늘어

나고 규모가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봉사관, 제2교육관, 동산조성, 기도원 증축 등으로 예산이 지출될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즉흥적인 행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사전에 면밀히 계획되고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행사를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금년도 충족하게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구위원회 / 우기전 장로

충현교회 설립 40주년이 되는 1993년을 뜻깊은 해로 맞이합니다.

저의 충현 신앙 30여년이 묻혀있는 40년의 충현사는 인간의 가쁨으로하여 불혹의 장년기를 맞게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년 충현에서 더욱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에 최선을 다하는 해로 삼으려 합니다.

교구는 교회의 신경조직입니다. 신경의 역할은 말초의 자극을 뇌로 전달하고 뇌의 명령을 말초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구조직은 교회의 의사를 교인에게 전하고 교인 사정을 교회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상통하달의 과정이 순조로워야 하고 원활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불편이 오고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교인도 손해를 보게됩니다.

구역은 교회의 세포와도 같습니다. 인체의 구성단위가 세포라면 구역은 교회의 구성단위인 것입니다. 세포가 병들거나 영양실조에 걸리면 인체는 열을 내고 기능이 약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구역이 활발치 못하면 교회가 약해지고 구역이 활성화되고 구역이 부흥이 되면 그것은 바로 교회성장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구위원장직은 교회의 신장소통이 잘 되도록 돕는 일과 교회의 기본단위인 구역이 활발히 성장하는 일을 돕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교구의 일꾼들이 힘을 합쳐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힘껏 일해보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보니

1993년도 당회서기 / 오태희 장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하고파
충현교회의 전통적 신앙을 이어 나갔으면

1993년도 교회의 당회서기를 맡으신 오태희장로님(53세)을 만나보았다.

— 새 일을 맡게되면 누구에게나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더구나 아주 귀한 직책이지만 너무 중책이라서 감회도 남다를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또 늘 기도하는 당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무와 일들을 대하는 당회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럴때 교회의 어른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맡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몇번 사양을 했지만 교회에서 지나친 사양도 덕이아니기에 맡기는 말았습니다만 너무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에 두렵고 떨립니다. 이 직책을 맡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하던 중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법례를 지고 벤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암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암소의 본연의 임무는 짐을 싣는 것이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임무가 주어졌을 때 묵묵히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이 저도 그런 마음과 자세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 당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떤 당회의 모습으로 교우들 앞에 비쳐지기를 원 하시는지요?

▶늘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피차 이해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서로 화목하는 당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하는 일이 필요하겠지요.

— 교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부탁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지요

▶금년에는 우리 충현교회가 설립40주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일은 그동안 김창인 원로목사님으로부터 배우고 전수받은 신앙의 모습이 많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충현교회 40년의 신앙전통을 잘 살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즉 경건한 열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지키려고 애쓰는 태도들—성수주일문제 등. 또 한가지는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쉽습니다. 새벽기도회를 나가보면 그 교회의 기도의 분위기를 알 수 있지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분위기가 살아 있었으면 합니다.

오 장로님은 우리 교회 제19대 장로님으로 15년 동안 장로로 근속하시며 동료 장로님들과 함께 지난 달 27일 저녁예배시 근속 표창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내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셨습니다. 부인인 이명자 집사님(50세)과 사이에 2남(규원, 규창) 1녀(은영)를 두셨다. 13교구 소속으로 성동구 구의동에 사신다. <형>

새해에 소망한다

서 동 석

(장로·당회 부서기)



도 새해가 밝았다. 오고 가는 세월 속에 어제와 오늘이 뒤 다를 것이 있겠는가. 그래도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다는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새로운 설계를 해 볼 수 있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전환점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우리 충현교회가 40년의 역사를 맞는 해이기도 하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역사이기도 하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우리 충현교회이기 때문에 올해를 전환점으로 삼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며 새해의 소망 몇가지를 해아려본다.

우리 교회는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열정적인 기도가 가득 차고, 헌신과 봉사가 가득 차고, 사랑이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사랑 속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서성거리는 사람이 많다.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있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 주인 의식을 상실하고 손님 노릇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성도들이기에 우리의 자리를 바로 잡고 서기를 바란다. 그리고 매사에 적극성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당회가, 제직회가, 교회학교가, 남여전도회가, 구역전교회에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올해는 꼭 배가를 이루는 성장된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해 마다 이때쯤이면 나는 지나간 다 이어리를 들여보는 습관이 있다. 새해 첫날 뽀뽀히 적어놓은 계획과 실천사항들이 과연 얼마나 지켜졌는지 보기 위해서이다.

· 92.1.1 올해의 나의 목표
첫째 아침 6시 기상, 그리고 가벼운 운동으로 심신을 단련하자
둘째, 아침은 꼭 먹고 경건의 시간도 꼭 갖자.

셋째, 성경을 매일 읽고 한번 완독하자.
넷째, 반드시 한명 이상 전도하자 등.

그러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나의 약속이 실천되었는지 반성해 본다.

아침 6시 기상은 나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았고, 성경완독 계획은 계획 자체로 만족해야 했다. 다행히 '예수사랑 큰잔치'를 계기로 한명을 전도 했지만 그것 또한 양심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실패(?) 가운데 92년도에 내가 얻은 한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Q.T(경건의 시간)의 즐거움을 얻었다는 것이다. 비록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번 지나

손을 들어 주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모세의 손을 들어준 아론과 홀은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승리자가 되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순종한 결과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순종하여야 하겠다. 간섭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억지부리지 말고, 고집으로 험기 보이지 말고 아론과 홀처럼 손을 들어 줄 때 우리 모두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말고, 참견하지 말고, 억지부리지 말고, 고집으로 험기 보이지 말고 아론과 홀처럼 손을 들어 줄 때 우리 모두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당회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기를 소원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당회는 침체될 것이다. 상호 인격적인 존중이 있어야 하고, 하나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날마다 공부하는 당회원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눈물이 있을 때 당회는 변화될 것이다.

대통령을 탄생시킨 교회의 면모를 갖기를 소망한다. 청와대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그렇게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집하는 보수교단의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게 하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한다. 이 땅의 부정부패, 사치와 음란과 퇴폐를 몰아내고 질서와 윤리 도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대통령이 앞장을 서도록 기도하고 밀어드릴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다. 대통령을 탄생시킨 교회로서 선지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되기를 소망한다.

친척도 있지만 아침에 조용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Q.T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내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많은 것을 실패하고 겨우 한가지지만 그런대로 했건만 이것은 나에게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주고있다. 진정한 행복은 역시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한번 생각해 한다.

다시 연말이 돌아왔다. 나는 잠시 내년 계획을 세워본다. 매년 반복되는 계획이고 실패이고 하지만 그래도 매년 계획을 세우게됨을 볼 때 참 신기한 생각도 든다. 그래서 매년

‘새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 한해를 회망과 설렘 가운데서 시작해 본

새해를 계획하며

안 소 영

(청년2부 회원)



다. 여러가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들이 머리를 스치며 지나간다. 그러나 나는 간단히 나의 93년도 실천할 것들을 적어본다.

· 93년도 나의 목표

1. Q.T를 통하여 하나님을 매일 만나자.
2. 그리고 그것을 매일 함께 나눌(?)를 만나자.
3. 주님 나에게 인내와 용기를 주소서.

새 포도주를 담기에 넉넉한 가족부대로

김 정 필

(집사·고등부교사)



새 포도주는 새 가족부대에 담겨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비유는(마 9:17; 눅 5:37-38) 수 십 가지 비유중에서 공관복음 모든 곳에 기록된 8가지 중의 하나이다. 새 포도주를 낚은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의 힘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터져서 마침내 새 포도주까지도 못 쓰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7일 동안에 되어짐을 보듯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한 주간으로 연결되어 늘 새롭게 역동적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서양 모두 1년이라는 단위를 귀하게 여겨 신년초에는 그 해의 계획을 짜고 서로 덕담과 소원들을 나누며 한 해를 시작한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년에 예배와 기도회 등에 참석하여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많이 하게 된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렐 33:2)를 의지하여 맡겨진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족부대가 되어 말씀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길 바란다.

또한 새해에는 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하여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쏟아 붓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겪었던 여러 일들 속에서 섭리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과 나누면서, 분부 받은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마 28:20)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로서의 자라나야 하는 그들이 올바른 신앙인격을 갖추어 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즐거움도 맛보고 싶다.

생의 한가운데에서 여러 문제를 부딪치게 됨은 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속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견디어 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계획과 생각들이 성령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하여, 매일 아침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과 매일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삶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 늘 새롭게 부어 주시는 포도주를 담아드리기에 넉넉하고 건강한 가족부대가 되어 나날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1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사 사진을 잘 찍는 것은 그리 수월한 일은 아니다. 물론 요즘은 전자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잘 찍히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은 처음 카메라를 만질 때의 이야기이지 어느 정도 카메라를 만진 사람은 자신이 직접 조작해서 사진을 찍고 싶어한다.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다. 소위 노출, 시간, 초점 맞추기, 구도 등이 그것이다. 그중에

◆칼럼/역삼동에서◆

초점 맞추기



조 선 군

(장로·출판국장)

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거리 맞추기라고도 말하는 초점 맞추기이다. 노출이나 시간, 구도 등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현상과 인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수정이 가능하데 초점을 잘못 맞추어 상(像)이 이중으로 나온 사진은 수정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고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매일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교제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결심을 많이 하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뽀뽀할 수 없는 결심 중 하나는 아니 반드시 쟁야 할 결심은, 매일매일 묵상하며 말씀을 보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이 일이 빠진 생활은 초점 맞추지 못한 사진과 같아서 아무 쓸모가 없다. 다른 것은 조금 못해도 또다시 할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은 지나가면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시간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말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것 외에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의 목표인 천국 일꾼으로 커 나갈 것이고, 민족과 세계를 향한 선교도 가능해질 것이며, 교회와 사회의 갱신도 이루어질 것이다.

1993년부터 바뀌는 사항

제 23교구 신설, 분당 신도시에
교구장에 김재명 장로

교육훈련원 신설, 교육위 소속 8개부서 담당 원장에 신성종 목사, 부원장에 김은호 장로 교육위는 27개 교회학교만 전담키로

당회는 그동안 교육위원회 산하에 주간교육 기관 및 전교인 대상 교육기관인 유치원, 성경연구원, 유아원, 조기교육원, 한국교회성장연구원, 선교교육원, 경로대학, 전도교육원의 모든 부서를 새로 신설된 교육훈련원으로 돌리고 교육위원회는 교회학교의 성격을 띠는 27개 부서만을 전담토록 했다. 이는 교회학교와 성격이 다르기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교육위원회나 교육훈련원 모두의 획기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새로 신설된 교육훈련원의 원장은 당회장 신성종 목사, 부원장은 김은호 장로가 맡게되었다.

세례부는 새가족부에 통합

한편 그동안 6개월 과정의 세례부가 새가족부로 통합되어 세례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는 새신자의 경우 너무 오랜 기간 새신자 관련 부서에 있기에 교회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또한 교과내용이 새가족부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새가족부에서 충분히 소화 할수 있기에 취해진 조

치이다. 그동안 세례부 교사로 봉사하시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가족부 교사로 임명되었다.

매주 갈릴리홀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 까지 모이게 된다.

I, II, III 교육위원회 통합 위원장에 송기홍 장로

당회는 그동안 I, II, III 교육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교육위원회가 교육훈련원을 신설코 8개 부서를 이관함에 따라 전체를 통합하고 위원장에 송기홍 장로를 임명하였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는 교회학교 업무만 관장하게 된다.

구제위원회 폐지, 봉사위원회 신설 위원장에 박치민 장로

교회는 그동안 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구

제부, 미화부, 경조부, 차량관리부를 통괄하는 봉사위원회를 두었다. 봉사위원장에는 박치민 장로가 임명되었다.

감사위원회, 행정감사도 실시키로

당회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그동안 각 부서의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행정감사까지도 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다.

영아부, 학부모교육 실시키로

교회학교 영아부는 그동안 영아교육을 주 교육으로 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영아와 학부모를 동시에 교육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는 영아교육은 실제상으로는 부모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가정의 부모들이기 때문이라는 영아교육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영아부는 새해에 영아와 부모를 함께 모집하여 교육을 하게 된다. 현재 영아부는 I부(오전 9시), II부(오전 11시)로 나뉘어 모이고 있다.

당회는 분당 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고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늘어나고 또한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서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제 23교구를 신설하기로 하고 교구장에 김재명 장로를, 담당 교역자에 임성한 목사, 김정자 전도사를 각각 임명했다. 현재 분당지역에는 40여 세대의 교우들이 살고 있다.

일어예배 및 일어교육부 폐지

당회는 일어예배와 교회학교 일어교육부를 새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1990년 9월30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돕고자 시작했던 일본어 예배와 일어교육부는 전담 교역자등 여러가지 어려움과 사정 때문에 2년4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영아부는 새해부터 영아와 학부모 교육을 동시에 실시키로 하고 학생을 모집중이다.

<주간충현>은 우리 충현의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장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우리 충현교회의 얼굴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애정과 깊은 사랑으로 <주간충현>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충현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하면서 1993년의 <주간충현>의 기본 편집 방향을 알려 드립니다.

1면

1) **뉴스** : 기사작성 원칙에 충실하되 특별히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의 중요성을 공감토록 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밖의 소식 중 전 기독교인이 동참해야 하는 일과 교단의 일중 중요한 것과 충현교회가 관련된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 사람을 만나보니** : 전 교인을 대상으로 교회 내의 행사 또는 교회 밖의 삶 등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적인 신선한 자극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3) **카메라 초점** : 많은 글보다 한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게재하되 사진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분명한 사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4) **이달의 게시판** : 매달 첫주에는 그 달의 행사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게재함으로 자신의 월간 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원로목사 및 당회장 동정** : 원로목사 및 당회장의 동정을 알려 드림으로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간충현> 1면 게재 원칙 -
① 전 교회적 행사 및 이와 관련 된 내용

- ② 부분 행사라도 전 교인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내용
- ③ 전 교회적 광고(예, 공동의회 소집 등)
- ④ <주간충현> 편집실 광고
- ⑤ 돌출 광고(Box)는 위와같은 경우 외에는 전면 금하려고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면

1) **충현강단** : 당회장 목사의 수요예배 강해 및 기타 성경강해를 신도 많은 사람들이 읽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아름다운 편집을 하겠습니다.

<주간충현> 1993 이렇게 하겠습니다

2) **기타 당회장에 대한 고정란** : <한국일보>에 게재되는 광고적 신앙적 칼럼 '길' 등

3면

1) **칼럼/역삼동에서** : 고정 칼럼란으로 분기별로 칼럼위원 3~5명을 선정하여 집필토록 할 계획입니다.

2) **독자서** : 독자들의 참여란으로간증, 수필, 시, 제언 등과 또한 시의에 적절한 제문, 교육적 내용(예, 성찬의 자세, 감사에 대하여서 등)으로 편집하겠습니다. 또한 매 월

별로 책소개, 신앙상담, 충현교회 40년 소사, 등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4면

1) **알려드립니다** : 4면 전체의 제목으로 각 부서에서 일어난 일들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각 담당 통신원이 보내온 원고를 중심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통신원을 지정하여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 **우리는 지금** : 부서 및 각 모임을 소개하는 자리로 부서 전체를 소개하기 보다는 그 부서 및 모임의 특색 및 활동적인 모습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여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교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3) **물맷돌** : 편집실에서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4) **장로·교역자 동정** : 원로장로, 시무장로 및 교역자의 동정을 알람으로 서로의 교제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싶습니다.

● **원고 마감** : 수요일 저녁예배 후까지 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책임있는 제작을 위해서입니다.

● **이상은 평상시의 기본적인 편집방향입니다.**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8면으로 증면할 수 있습니다.

● **출판국에는 출판국장 조순근 장로와 출판국 위원으로 하대선·송환왕·박영식 장로가 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출판국 전체의 운영과 <주간충현>에 대한 편집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를 위하여 이형수 집사(편집장)와 이종희 선생(상근 직원)이 있습니다. 출판국에서는 <주간충현>, <충현의 만나>, 주보 등을 맡아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과 원로목사와 당회장 목사의 설교, 강해집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새 날, 새 일꾼, 새 출발

4일부터 기도원에서 부흥회와 13, 14일 단기수련회로 시작

각 부서 새 계획 마무리짓고 새 날을 맞아

1993년 새해를 맞아 교회는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고 있다. 지난 해 연말부터 계속된 새로이 바뀐 얼굴들과의 교제와 신년도계획을 짜느라 특별 모임들이 잇달아 모이고 있고 각 부서의 책임자들은 열심히 이리저리 뛰며 새해 준비에 여념이 없다. 각 위원회, 찬양대, 교회학교, 남녀 전도회, 교구 등 교회의 전 조직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를 함께 계획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연말과 연시를 보내고 있다. 아마도 이번 주 안으로 대부분 정리가 되어 우리 앞에 놓인 1993년의 살들을 활기있게 시작할 것이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은 <주간충현>과의 대담에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으로 '작년에 시작한 배가운동의 결실, 북한선교와 새신자 양육, 기도원을 이용한 교회의 기도운동의 활성화'라고 말씀 하셨다.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와같은 1993년의 큰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헌신을 위해 금주 월요일(4일)부터 금요일(8일)까지 기도원에서 신년 부흥회로 모이기로 결정하고 모든 준비를 끝냈다. 금주 부흥회는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종 목사, 기도원 지도 유창무 목사가 강사로 수고하며 말씀을 전할 것이다. 부흥회 기간 중 새벽 5시의 새벽기도회와 오전 10시 30분 낮 성경공부는 유창무 목사가 인도하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부흥회에는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 부흥회를 위하여 기간중 오전 9시~9시30분, 오후 6시~7시에 교회에서 기도원까지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며, 성남과 분당에 사는 교우들을 위하여 오전 10시와 오후 7시30분에 성남 모란 시장 남쪽 50m지점 마을 버스정류장에서 기도원행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1월13, 14일 양일 저녁에는 교회에서 장로, 교역자, 안수집사, 권사,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교구일꾼, 전도회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수련회를 실시한다. 각 일마다 첫 시간은 다함께 예배를 드리고, 둘째 시간은 직분별로 모여 특강을 듣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며 시작한 한 해가 연말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될 것이다.



▲기도원은 새해를 맞아 더욱 활성화 될것이다. 교회에서 기도원을 이용한 기도운동에도 기도원 자체가 계획하는 각종 부흥회 등으로 기도원을 찾는 사람이 많아 질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란은 교회의 공식적인 부서 소개는 물론 작은 기도 모임이나 스터디 그룹, 여러 형태의 소그룹등 교회 안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은 어느 것이나 소개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모임 소개가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내가 속한 동아리와 사람들을 소개하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간충현> 편집실(☎ 552-8200)로 연락을 주십시오. <편집자 주>

『선교관 4층 홍보실은 늘 저녁 늦게까지 불이 켜 있다. 아니 어떤 때는 새벽까지도 불이 꺼질 줄을 모른다. 그곳에는 항상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드나들며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의 여러가지 장식물들-절기에 따른 교회당 내외의 장식들, 각종 현관, 현수막 제작 등을 통해 먼저 교인들에게 감각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는 팀이다. '만약 어느날 교회당 내외의 모든 장식물들이 제거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해 본다면 그들이 하는 일의 필요성을 모두가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교회같은 대형교회로서는 더욱더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일이 절실하게 요구되기에 이런 '알림'을 전담 할 팀이 있다는 것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넓은 방 이곳 저곳에는 여러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형상과 종이, 컴퓨터, 복사기, 심지어 재봉틀까지도 동원되는 이곳의 정식 명칭은 교회행정 실무조직 중 '기획실 홍보과'이다. 그러나 이곳을 드나드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정식 명칭을 아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는지 모른다. 그저 일이 좋고 그 일이 여러 사람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창의성과 혼자로서는 불가능한, 함께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싶어 나와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내 장식물 및 모든 홍보물들은 모두 박 선생의 아이디어와 대학생·청년 자원 봉사자들의 손길을 거쳐 이루어진다. 기획, 제작, 뿐만 아니

라 시공(?) 까지도 직접 담당 하기에 주로 주일에 부차되어 있어야 하는 본당이 나 갈릴리 홀, 등의 일을 위하여 토요일 저녁은 거의 늦게까지 애를 써야 한다.

이곳에서는 이와 같은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행사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은 이승철 집사가



▲성탄절에 홍보실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니 잘 모르면서 하는 비판일지라도 무관심보다는 좋은 것이기에 어떤 때는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즘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격려 섞인 칭찬을 듣기도 해서 더욱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늘 따라다닌다. 현재 감당해야 하는 일도 여러운데 그들은 '교회 내의 구석구석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모이면 그런 아이디어들로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1993년에는 장식물 뿐만 아니라 교회 각 부서에서 발간되는 각종 출판·유인물을 아름답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홍보팀의 소망이다.

누가 인정을 하건 안하건,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공동 선(善)을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늘 전체적인 아름다움과 내밀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행>

◆우리는 지금◆

"홍보팀"- 늘 젊은 패기와 활력으로 창조하며 협력하는 곳

담당하고 있다.이 집사는 그동안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던 교회의 모든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어려운 일을 달갑게 자원하여 하고 있다. 또한 교회 내외의 큰 행사 후에는 본당 지하의 로비에서 사진전시회를 열어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다.

이런 일은 창작물이기에 여러 사람들의 비판적인 말을 많이 듣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일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그런 비판을 귀담아 듣는다.

1월의 게시판

1일/신년예배
3일/제1차 공동의회
4-8일/신년 부흥회(기도원)
8일/제1차 세례식
10일/제1차 성찬식
13-14일/신년직분자 단기수련회
11-14일/전국 대학생, 청년 연합수련회(기도원)
17일/안수집사, 권사 투표
18-21일/심령 부흥회(기도원)
25-29일/심령 부흥회(기도원)
31일/선교주일

《충현의 만나》 1월호 발간

전 충현인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발간하는 <충현의 만나> 1월호가 지난달 27일 발간되어 전 가정에 배부되었다. 1월호는 전년과 달리 글자의 크기를 조금 크게 하고 행간을 넓혀 보기에도 편리하게 편집되었다. 1993년 신년호로 발간된 <충현의 만나>는 신년의 가정예배를 위한 특별 메시지와 지난 12월에 이어서 마가복음과 신명기 일부를 수록했다. 1월호는 조동원, 한용관, 성봉환, 조운재, 이종대, 정광욱, 장봉생 목사가 집필했다. 새해에는 이 <충현의 만나>를 활용하여 전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새로 오는 교역자

박정규목사와 변춘옥 전도사

교회는 박정규 목사(33세)와 변춘옥 전도사(32세)를 새해부터 모시기로 했다.

박정규 목사는 대선대학 신학과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실천신학 전공)을 졸업하고 1983년부터 대선교회, 석수중앙교회, 대전중앙장로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으며,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대전중앙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고 대전신학교에서 논리학 강사로도 있었다.

변춘옥 전도사는 대전신학교를 졸업하고, 경향교회, 산내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일했고,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대전중앙교회에서 유년부 지도와 <대전중앙> 편집부에서 일했다. 또한 변 전도사는 기독교 아동문학 신인상(동화부문, 대한기독교교육협회)과 통일문에 작품현상모집모집 최우수상(국토통일원)을 수상하기도 했다.



* 공동의회 소집 *

1993년도 제1차 공동의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등록세례 교인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1993년 1월 3일 4부 예배 후
- 장소/본당
- 안건/① 1992년도 결산 보고
② 1993년도 예산 승인
③ 1993년도 안수집사 및 권사 선거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당회장 신성종